

함께 '땀'을 흘리며 이웃과 호흡하고자 합니다.

OTHER ACTIVITIES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사회공헌활동
기부활동
공익교육활동

지평은 두루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현장을 경험하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돕기 마라톤대회

지평과 두루는 4월 14일 여의도 한강변에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마라톤대회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변호사와 임직원, 가족 30여 명이 5km 걷기 종목에 참가하였고, 참가비 전액은 거례얼학교 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비 오는 곳은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농촌봉사활동

지평과 두루는 2012년부터 7년째 농촌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에는 1박 2일 동안 충북 제천시 덕산면으로 손 모내기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왔으며, 10월에는 같은 곳에서 벼 베기와 탈곡, 고추 수확 등 가을 수확기 마을 주민들의 부족한 일손을 도왔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노을공원 숲 가꾸기

지평과 두루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노을공원에서 숲 가꾸기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매해 환경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임직원 14명이 참여하여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 위에 나무를 심는 숲 가꾸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생명의 땅 지구에 쓰레기 대신 맑은 자연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환경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지평과 두루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서대문구 연희동에 소재한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제빵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시간 동안 계량, 반죽, 빵 굽기, 포장 공정 등에 참여하여 직접 구운 따뜻한 빵을 서대문구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봉사활동

지평과 두루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마다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분들을 대상으로 저녁식사 배식 및 마무리 정리를 돕습니다. 노숙인분들의 환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거례얼학교 후원의 밤

지평과 두루는 10월 25일 거례얼학교 학생들과 '거례얼학교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거례얼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함께 식사하며, 학생들과 게임을 통해 선물을 전달하는 뜻 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례얼학교'는 저소득층 탈북 청소년들과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 2세 아동들이 정착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도권 교육에 원만히 진입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과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평은 2011년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참여

지평과 두루 구성원 40여 명은 11월 24일 '2018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 지평은 2,000장의 연탄을 전달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은 2004년 6월 남과 북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지평과 두루는 2005년부터 14년째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02

기부 활동

지평은 2010년부터 매칭그랜트(구성원이 공익단체에 후원하는 금액만큼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1대 1로 매칭하여 후원하는 제도)를 통해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칭그랜트 외 주요 기부

- 이음장애인자립센터가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이음여행' 지원
- 사북지역의 교육을 위한 협동조합 '천개의 숨' 지원
- 이화여자고등학교 취약계층 학생 장학금 지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자립전환 프로그램' 지원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후원음악회 지원
- 이주민센터 '친구' 지원
- 탈북자자녀 대안학교 '겨레일학교' 지원
-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 지원
-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지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권법캠프 지원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연' 캠프 지원
-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지원
- 난민인권센터 인권비 지원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지원
- 시각장애인 법학전문대학원생 학비 지원
- 국제아동인권센터 '탄생 축하 프로젝트' 지원
- 장애인인권활동 공간마련을 위한 '벽돌기금' 지원
-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알기 쉬운 발달장애인법 해설서' 제작 사업 지원



향유의 집 자립전환 프로그램 지원

지평과 두루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자립(이른바 '탈시설')을 꾸준히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연구해 왔습니다. 향유의 집은 사회복지법인 스스로가 시설을 해체하고 거주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향유의 집 거주인에 대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이 프로그램에 재정지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향유의 집 거주인들이 안정적으로 자립을 하게 된다면 탈시설 운동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탄생 축하 프로젝트' 지원

출생신고는 이 세상이 한 아이의 탄생을 맞이하는 최초의 공적 절차로서, 모든 아동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의 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해보고자 이 사업을 두루와 함께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본 프로젝트에 재정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이 같이 될 때' 홍성수 교수님 초청 공익강연

지평과 두루는 2월 28일 2018년 제1회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말이 같이 될 때(부제: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님이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홍성수 교수님은 한국사회에서 혐오가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시작으로, 혐오표현의 개념과 대상 및 양태, 유형, 사회적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아가 혐오 문제와 맞닿아 있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뿐만 아니라 혐오표현을 규제한다면 그 규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떤 방향과 내용이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강연 참석자들과 뜨겁게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현실 공익강연

지평과 두루는 6월 21일 2018년 제2회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은 '이주 노동자의 현실'을 주제로 하였고,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님이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 100만 명 시대, 우다야 라이 위원장님은 네팔 출신으로 1998년 한국의 한 공장에서 노동을 시작하여 2009년부터 이주노조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2010년부터 민주노총에서 일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 찾기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이 나온 지 3년,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주노조는 왜 필요한지, 그보다 앞서 이주노동자들은 어떠한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지 들여보았습니다.



마리몬드 이야기 공익강연

지평과 두루는 11월 22일 2018년 제3회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마리몬드'의 윤홍조 대표님을 통해 마리몬드의 설립부터 성장 과정, 앞으로의 비전까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리몬드는 디자인 제품과 관련한 콘텐츠 및 프로젝트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동반자들의 이야기를 알리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영화 '어른이 되면' 상영회 및 감독과의 대화

지평과 두루는 9월 6일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의 공동체 상영회를 개최하고,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 '어른이 되면'은 서른 살이 된 발달장애인 동생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장혜영 감독이 유튜브 채널에 동생과의 일상을 꾸준히 올리다가 그 기록 영상을 편집하여 완성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구성원들이 좀 더 쉽게 공익에 다가서고, 공익·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분기 별로 공익강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03

공익교육 활동